

익산시, 하림 등 식품기업과 손잡고 지역 상생 일자리 창출 모델 만든다

하림 2024년까지 8800억 투자
신규 일자리 2000개 이상 계획
식품클러스터 입주 기업도 동참

익산시는 하림을 비롯한 식품기업을 중심으로 한 '지역 상생 일자리 모델'을 만들겠다고 14일 밝혔다.

닭고기 전문업체인 하림은 익산의 향토 기업으로 2024년까지 8800억원을 투자해 2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를 일자리 모델로 발전시켜 투자와 함께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겠다는 것이다.

하림도 지역과의 상생 발전, 원활한 인력 수급 등에 관심이 커 원칙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힌 상태라고 익산시는 설명했다.

다. 이를 익산의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입주한 식품기업들을 대거 참여시킨 일자리 모델로 발전시키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다.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 기업이 포함되면 추가로 5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을 것으로 익산시는 전망하고 있다.

익산시가 구상하는 이 협약안은 일자리 모델에 참여하는 기업의 경우 지역에서 생산된 식품 원료를 우선하여 구매하고 농가 및 협력업체와 일정 수준 이상의 단가 및 계약 기간을 유지한다.

대신에 정부와 함께 일자리 보조금과 노동자 임대주택을 지원하고 국가식품클러스터에 각종 편의시설을 확충해준다.

노동자들에게는 국가식품클러스터가 활성화할 때까지 단체협약을 유보하는 등의 양보 방안을 제시하는 안을 고려하고

있다. 익산시는 이 협약안에 대해 노사민정 주체들과 이점을 조율하고 있으며 조만간 협의회를 구성해 구체적인 논의에 들어갈 계획이다.

내년 상반기까지는 협약안을 확정해 정부 공모에 참여할 예정이다.

익산시는 장기적으로 지역 특화산업인 주얼리 기업과 섬유 기업을 축으로 한 일자리 모델도 만들 방침이다.

익산시 관계자는 "익산이 가장 장점을 가진 식품 산업을 기반으로 한 일자리 모델로, 고급 일자리라기보다는 지역에 거주하는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다는 차별점이 있다"며 "차질없이 준비해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식품 산업 발전, 지역 농민 소득 증가라는 효과까지 거둘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유정영 기자 yjjy@

정읍시,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에 감사패 수여



정읍시가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본부장 이호경)에 시장 명의의 감사패를 수여했다.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실천하는데 노력하며 정읍시 귀농·귀촌 정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왔다.

유진섭 시장은 지난 12일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장을 비롯한 관계자를 격려하기 위해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에 감사패를 전달했다.〈사진〉

정읍시와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는 귀농·귀촌인의 안정적 정착 지원을 위해 지난 2018년 11월 MOU를 체결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고창 '고인돌문화제' 16~17일 죽림선사마을서 개최



고창군이 주최하고 (재)호남문화재단이 주관하는 '2019 고인돌 문화제'가 16~17일 이틀간 고창군 고인돌유적 죽림

선사마을(사진)에서 열린다. 축제는 지난 2000년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고창 고인돌유적의 문화유산 활용으로

선사시대 돌과 관련된 인류의 기술 진보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선사시대 돌 기술' 프로그램에서는 펜석기(구석기)·간석기(청동기) 제작, 선사시대 목공 사용, 선사시대 정육점을 운영해 수익금은 고창군 장학재단에 전액 기부할 계획이다.

또 고창 고인돌유적의 현대적 의미를 해외·국내 사례와 비교하는 강연, 관광객들의 궁금증을 즉석에서 해결해 주는 '가을 밤 죽림선사마을 토크아바웃'이 진행된다. 특히 운곡습지 산책길을 걷는 '운곡습지생태길걷기'와 운곡탐사르스즈 주변 6개 마을 주민들과 함께 운곡습지의 역사와 옛 추억을 되돌아보는 '생태관광 페스티벌'도 함께 열릴 예정이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

목포 미래먹거리 '수산식품·신재생에너지' 방점 민선 7기 시장의 치밀한 준비·끈질긴 설득 '주효'

■목포 대양산단·신항 국가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어떻게 지정됐나



목포시는 지난 13일 김종식 목포시장의 주재로 '2019 시정 성과와 과제 토론회'를 열었다. <목포시 제공>

지난 6일 정부가 발표한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에 목포 대양산단과 신항이 포함되기까지 수차례 고비를 넘기며 얻어낸 값진 성과물이라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김종식 목포시장은 지난 13일 열린 '2019 시정 성과와 과제 토론회' 모두발언에서 "연초부터 치밀하게 준비해 무에서 유를 창조해낸 쾌거"라며 그간의 드라마틱한 과정을 소개했다.

그가 에너지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지난 2017년 광주광역시 경제부시장으로 재임하던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김 시장은 "경제부시장의 주요 업무가운데 하나가 에너지이어서 에너지에 대한 선구안을 갖게 됐고 이를 계기로 지난 선거에서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을 공약으로 내세운 것도 이 때문"이라고 말했다.

민선 7기 출범 초부터 목포의 미래 먹

거리(전략산업)로 '수산식품과 신재생에너지'에 방점을 찍어온 김 시장은 지난 2월 19일 '김영록 도지사와 목포시민과의 대화'를 디데이 삼아, 당시만 해도 생소했던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라는 비장의 카드를 꺼내들었다.

시민과의 대화 이후 도지사와 함께 현지 방문에 나선 김 시장은 의도적으로 대양산단 내 에너지 관련기업을 방문,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이를 언급했다.

당시 전남도 담당 국장은 나주시만을 고집하며 어렵다는 의견을 피력했으나 김 시장은 "하나의 단지로만 보지 말고 벨트 개념으로 가야 한다"고 설득해 첫 고비를 넘겼다.

이어 김 지사의 지시로 전남도 녹색에너지연구원에서 관련 용역이 실시됐지만 아예 목포는 빠지고 나주시에 초점이 맞

춰졌다.

이에 전남도 부지사와 녹색연구원장을 대상으로 "네트워크 개념으로 가야한다"며 적극적인 구애(?)를 펼쳤다. 이 과정에서 김신남 목포부시장도 힘을 보탰다.

김 시장은 목포 신항은 에너지관련 부품과 설비의 해외수출 전진기지로 최적의 입지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에너지 단지 조성 기본계획 수립 시 거리 등의 이유로 대양산단이 지정조건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건의가 받아들여지면서 두 번째 고비를 무사히 넘기고 전남도 조성계획안이 9월 25일 확정돼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됐다. 두 차례 고비를 넘겨 산자부까지 가는 데 성공했지만, 기존 클러스터 공간 범위에 국가혁신 융복합단지의 경우 광역시는 반경 10km, 광역도는 20km규정에 부합치 못 다시 난관에 봉착했다.

이에 김 시장은 두 차례 산자부 장관을 면담하고 당위성을 설명했다. 그 중간에 담당 과장까지 바뀌어 다시 처음부터 답을 쌓는 수고도 마다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대안신당 박지원 의원의 힘이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또 집권 여당의 서포트를 받기 위해 민주당 이해찬 대표 부실장인 조요한 전 시의원의 노력도 한몫을 했다.

김 시장은 "지역정지권이 전폭적으로 도와준 결과다. 엄청나게 고생했다. 한 편의 영화처럼 드라마틱했다"고 웃었다.

그러면서 "목포의 미래 먹거리 산업인 신재생 에너지 산업 육성이 탄력을 받는 것은 물론이고 대양산단 조기 분양에도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목포=고규석 기자 yousou@

순창군, 에너지 절약 985 가구에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1600만원 지급

순창군은 에너지를 절약한 985가구에 탄소포인트 인센티브로 1600만원을 지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제도에 가입한 세대 중 전기나 수도, 도시가스 사용량이 5% 이상 절약된 가구에 지급하는 것으로 내달 중 지급될 예정이다.

탄소포인트 제도는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 및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시민의식과 참여 확대를 위해 도입했다. 가구별 가입일 이전 2년간 평균사용량 대비 에너지 감축률에 따라 연 2회가량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전기나 수도, 도시가스 등 에너지별로 5~10% 줄이면 연 1500원에서 최대 1만원

까지 지급하고, 10% 이상일 경우에는 최대 2만원까지 지급된다.

이와 관련 군은 이달 말까지 군민 중 현재 탄소포인트제 미가입 가구에 대해서는 추가로 신청받을 계획이다.

신청은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에 접속해 가입하거나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세대에는 해당 주소지의 읍면 사무소를 찾아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순창군 환경수도과로 문의하면 된다.

순창군 관계자는 "탄소포인트제가 추구하는 환경문제는 모두가 함께 해야 할 부분"이라며 "아직 미가입 가구는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순창=장양근 기자 jyg@

군산 서수면 마포마을 '농작업 안전마을' 육성

군산시 서수면 마포마을이 '농작업 안전마을'로 육성된다.

시는 최근 원광대 예방의학과 오경재 교수를 초청해 매주 목요일 6회에 걸쳐 농작업 안전보건 교육을 진행했다.

또 농작업으로 인한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고추 수확운반차, 농작업 안전장비 등을 마포마을 30개의 농가에 보급했다.

이번 사업은 농작업 질환과 대형 농기계 사고 등 농작업 재해에 심각하게 노출돼 있는 농업인들에게 안전하고 능률적인 농작업 환경조성과 재해발생을 줄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군산=박금석 기자 nogusu@

호남동 대원빌딩 총별 “특별분양”

높은 전용면적 75%
11,12층 천정고 6M
분양가 470만원 ~
환기 공조 시스템 완비
중앙 냉난방 시설완비
300대이상 주차공간

“추천업종”

1

휘트니스센터,레저스포츠 시설

2

특급 한방병원,공공기관 사무실

3

일반 / 공유 오피스 사무실

4

신협,새마을금고,저축은행

분양문의 : (주)대원빌딩
062) 234-1233
위치 : 동구 천변우로 369 (호남동 23-2)